

동남권 지역의 소득변동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3. 9.



작성: 염지연 책임연구원
(yeomji00@bsfng.com)

< 목차 >

1. 생산 변동	1
2. 순분원소득 변동	3
3. 2007년 이후 동남권과 수도권간 소득격차 축소 요인.....	6
4. 정책적 시사점.....	11

1. 생산 변동

- 2001~2011년중 동남권지역(부산·울산·경남)의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111.7% 증가하여 전국(105.7%)보다 높은 신장세 시현
 - 동남권GRDP/전국GRDP 비율은 2000년의 17.0%에서 2011년 17.5%로 상승
 - 지역별 증가세를 보면 충청권(대전·충북·충남)(139.9%)에 이어 2위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99.9% 신장

지역별 명목GRDP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2000년	2011년	증가율
동남권	102.7	217.4	111.7
수도권	293.1	585.9	99.9
충청권	63.1	151.4	139.9
대경권	62.2	118.8	91.0
호남권	60.3	126.5	109.8
강원·제주	22.3	41.6	86.5
전국	603.7	1,241.6	105.7

자료: 통계청

- 연도별로 보면 2001~2006년 중에는 대체로 동남권의 명목GRDP 증가율이 전국보다 낮았으나 2007~2011년 중에는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이 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의 비교에서도 전국과의 비교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명목GRDP 증가율 추이



(상위 3개 지역 생산구조 비교)

- 2000~2011년 중 생산구조 변화를 보면 동남권 및 충청권은 제조업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으나 수도권은 소폭 하락
- 2011년 중 동남권과 수도권 및 충청권의 생산구조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두 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동남권 및 충청권의 제조업 비중은 55% 내외인데 비해 수도권은 24.0%에 불과
 - 그대신 수도권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및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두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지역별·업종별 생산 비중¹⁾ (명목가격 기준)

(단위: %)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농림어업	4.5	2.6	1.7	0.7	11.0	4.5
광업	0.1	0.2	0.1	0.1	0.5	0.3
제조업	44.7	54.6	25.7	24.0	40.6	55.2
기초소재	13.9	16.6	2.9	5.5	15.3	20.6
가공조립	27.4	35.4	15.4	14.9	19.3	29.8
생활관련	3.3	2.6	4.4	3.6	6.0	4.8
건설업	6.7	5.7	7.6	6.4	9.1	8.1
도매·소매업	9.3	8.5	14.8	15.1	6.9	5.8
음식·숙박업	2.6	2.2	3.2	2.9	2.7	1.9
금융·보험업	4.5	4.9	9.0	11.9	4.0	4.0
사업서비스업	2.4	3.3	7.2	9.0	3.7	4.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0.7	0.9	1.4	1.7	0.7	1.1
기타서비스업 ²⁾	24.5	17.1	29.3	28.2	20.8	14.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정부서비스 제외

2) 기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정보통신, 부동산임대 포함

자료: 통계청

2. 순본원소득 변동

- 2001~2011년중 동남권지역의 명목 개인순본원소득(피용자보수·영업이익·순재산소득)은 85.5% 증가하여 전국(90.2%)보다 낮은 신장세 시현
 - 이에 따라 동남권소득/전국소득 비율은 2000년의 16.0%에서 2011년 15.6%로 하락
 - 지역별 증가세를 보면 동남권이 수도권(102.1%), 충청권(94.0%)에 이어 3위이며 여타 지역은 70% 이하의 증가세 시현

지역별 명목 개인순본원소득 변동 추이

(단위: 조원, %)

	2000년	2011년	증가율
동남권	63.6	118.0	85.5
수도권	202.8	409.9	102.1
충청권	36.7	71.2	94.0
대경권	41.5	68.8	65.8
호남권	37.7	62.5	65.8
강원·제주	14.8	25.1	69.6
전국	397.2	755.5	90.2

자료: 통계청

- 한편 2001~2011년중 1인당 개인순본원소득은 동남권이 84.1% 증가하여 수도권(79.6%) 및 충청권(79.2%)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
 - 2011년 동남권의 1인당 개인순본원소득은 15.1백만원으로 수도권(16.7백만원)을 하회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평균(13.7백만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지역별 1인당 명목 개인순본원소득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

	2000년	2011년	증가율
동남권	8.2	15.1	84.1
수도권	9.3	16.7	79.6
충청권	7.7	13.8	79.2
전국 (수도권제외)	8.4 (7.7)	15.2 (13.7)	81.0 (77.9)

자료: 통계청

□ 소득원별 증가율을 보면 동남권의 경우 2001~2011년중 개인순분원 소득 증가율 1위 및 2위인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및 충청권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각각 129.9% 및 135.9%인데 비해 동남권은 109.5%에 불과
- 동남권의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20.1%)은 수도권(33.2%)보다 낮지만 충청권(9.5%)등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
- 동남권의 재산소득 증가율(84.3%)은 차입금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81.8%)은 물론 여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1~2011년중 지역별·소득원별 증가율 비교
(명목가액 기준)

(단위: %)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전국
개인순분원소득	85.5	102.1	94.0	65.8	65.8	90.2
피용자보수	109.5	129.9	135.9	88.9	93.4	118.5
영업잉여	20.1	33.2	9.5	9.1	4.0	22.9
재산소득	84.3	81.8	62.7	71.6	71.9	77.2
이자·임료	-26.4	-331.3	-20.9	-11.7	8.9	-90.3
법인기업분배소득	277.8	281.6	305.1	265.0	295.5	282.5

□ 2001~2011년중 전국의 피용자보수 증가속도가 영업잉여를 크게 상회하여 순분원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크게 상승

- 동남권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66.2%에서 74.8%로 상승하고 영업잉여 비중은 24.1%에서 15.6%로 하락
- 2011년 동남권(74.8%)의 피용자보수 비중은 수도권(77.0%) 및 전국(75.2%)에 비해 낮은 수준

지역별·소득원별 구성
(명목가액 기준)

(단위: %)

	2000년				2011년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전국	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전국
피용자보수	66.2	67.6	62.5	65.4	74.8	77.0	76.1	75.2
영업잉여	24.1	25.2	27.7	25.8	15.6	16.6	15.6	16.7
재산소득	9.7	7.1	9.9	8.7	9.7	6.4	8.3	8.1
이자·임료	6.2	2.3	7.3	4.8	2.4	-2.7	3.0	0.2
법인기업분배소득	3.5	4.8	2.5	3.9	7.2	9.1	5.3	7.9
순분원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연도별로 보면 동남권의 개인소득 증가속도가 2001~2006년 중에는 매년 전국보다 낮았으나 2007~2011년 중에는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임

지역별 개인순분원소득 증가율 추이
(명목가격 기준)



- 이에 따라 개인순분원소득의 증가율을 2001~2006년 및 2007~2011년으로 구분해 보면 2007~2011년 중 동남권(32.7%)이 전국(30.1%)은 물론 수도권(30.0%)을 상회
 - 2001~2006년 동남권(39.8%)의 순분원소득 증가속도는 전국(46.2%)에 비해 낮고 수도권(55.5%)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였음

지역별·기간별 개인순분원소득 증가율 비교
(명목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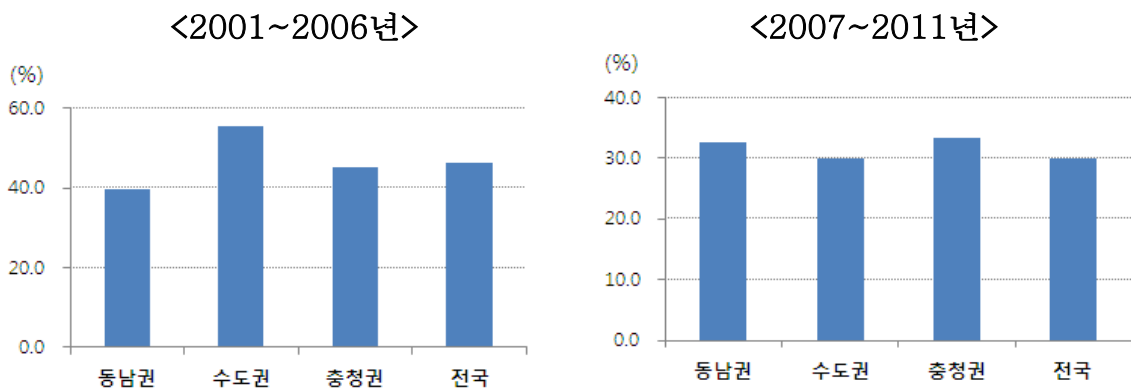
(단위: %)

	2001~2006년	2007~2011년
동남권	39.8	32.7
수도권	55.5	30.0
충청권	45.2	33.4
대경권	30.8	26.5
호남권	29.8	27.7
강원·제주	34.0	27.1
전국	46.2	30.1

3. 2007년 이후 동남권과 수도권간 소득격차 축소 요인

- 동남권과 수도권간 개인순분원소득 격차는 2001~2006년중 확대되었으나 2007년 이후 축소
 - 2007년 이후 동남권의 개인소득 증가속도는 수도권보다 높으며 1위 지역인 충청권과의 격차도 크지 않음

지역별·기간별 개인순분원소득 증가율
(명목가액 기준)



- 소득원별로 보면 2007~2011년중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 모두 동남권이 수도권 보다 빠른 증가세 시현
 - 재산소득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는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37.0% 감소하였으나 동남권은 7.0% 증가

동남권 및 수도권의 소득원별 소득 증가율 비교
(명목가액 기준)

(단위: %)

	2001~2006년		2007~2011년	
	동남권	수도권	동남권	수도권
순분원소득	39.8 (6.6)	55.5 (9.3)	32.7 (6.5)	30.0 (6.0)
피용자보수	54.9	70.8	35.3	34.6
영업잉여	9.0	22.4	10.2	8.8
재산소득	72.1	188.8	7.0	-37.0
이자·임료	49.3	304.3	-50.7	-157.2
법인기업분배소득	112.1	133.0	78.1	63.7

주: ()내는 연평균 증가율

소득격차 축소요인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

- 동남권과 수도권의 제조업 성장격차가 2001~2006년중 20.4% 포인트에서 2007~2011년중 33.8%포인트로 확대
 - 이에 따라 2007~2011년 중 제조업 종사자도 수도권에서는 15,107명 증가한 데 비해 동남권에서는 47,754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의 제조업 생산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오히려 확대
 - 동남권의 제조업 명목GRDP 증가율은 2001~2006년 연평균 8.6%에서 2007~2011년 중 13.9%로 확대
 - 동남권은 기계, 조선, 자동차 및 관련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업종의 생산 증가세 지속

2007~2011년중 동남권 주요 제조업 생산증가율 (2010년 가격기준)

(단위: %)

	부산	울산	경남
자동차	59.2	41.2	51.1
조선	-68.2	-17.0	103.7
기계장비	13.2	51.5	45.2
철강	0.2	14.1	12.3
고무제품	59.0	49.5	26.4

- 동남권의 산업단지도 2007년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크게 늘림으로써 제조업 기반시설이 강화
 - 2007~2011년중 동남권의 산업단지는 76개 늘어나 수도권(44개) 및 충청권(59개) 증가 규모를 상회

지역별 산업단지 변동 추이

(단위: 개)

	2001.1/4(A)	2006.4/4(B)	2011.4/4(C)	B-A	C-B
동남권	21	42	118	21	76
수도권	57	79	123	22	44
충청권	43	56	115	13	59

(소비·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높은 성장세)

- 2007~2011년중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의 경우 동남권의 생산 증가세가 수도권을 상회

동남권 및 수도권의 업종별 생산증가율 비교
(명목가격 기준)

(단위: %)

	2001~2006년		2007~2011년	
	동남권	수도권	동남권	수도권
명목GRDP	50.3	51.6	40.8	31.9
제조업	51.8	31.4	69.6	35.8
건설업	84.0	53.2	-2.6	5.0
도매·소매업	33.0	34.1	78.7	44.8
숙박·음식업	37.7	40.0	25.2	24.8
정보·통신업	50.9	62.1	-5.0	23.3
금융보험업	65.7	82.0	40.0	39.1
부동산·임대업	24.1	41.7	18.5	19.9
사업서비스업	91.0	75.8	50.5	36.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04.7	71.4	39.3	34.9

- 도·소매업의 1인당 급여액도 2007~2011년중 동남권이 42.0% 증가하여 수도권(35.1%)을 상회하여 질적인 성장에서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동남권 및 수도권의 도·소매업 1인당 급여 변화

	2006년			2011년			1인당 급여증가율
	종업원수 (A) (천명)	급여(B) (10억원)	1인당급여 (C=B/A) (백만원)	종업원수(D) (천명)	급여(E) (10억원)	1인당급여 (F=E/D) (백만원)	
동남권	395	3,192	8.1	377	4,612	11.5	42.0%
수도권	1,297	17,036	13.1	1,436	25,348	17.7	35.1%

- 숙박·음식업의 1인당 급여액도 2007~2011년중 수도권은 35.0% 증가한 데 비해 동남권에서는 48.7% 증가

동남권 및 수도권의 숙박·음식업 1인당 급여 변화

	2006년			2011년			1인당 급여증가율
	종업원수(A) (천명)	급여(B) (10억원)	1인당급여 (C=B/A) (백만원)	종업원수(D) (천명)	급여(E) (10억원)	1인당급여 (F=E/D) (백만원)	
동남권	283	1,107	3.9	305	1,782	5.8	48.7%
수도권	781	4,711	6.0	879	7,085	8.1	35.0%

- 이같은 결과는 부산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2005년 APEC회의 부산 개최, 1996년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부상한 것 등에 힘입어 동남권 중심도시인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크게 향상
 - 2003년 광안대교 준공으로 부산의 센텀지구, 해운대 등에 컨벤션·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확충기반 마련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금융 확대)

- 동남권의 금융·보험업 신장세는 2001~2006년에는 수도권을 크게 하회하였으나 2007~2011년 중에는 소폭 상회
 - 동업종의 동남권과 수도권간 증가세 격차는 $\Delta 16.3\%$ 포인트에서 $+0.9\%$ 포인트로 전환
- 이는 동남권의 경우 지방은행 등이 가계금융보다는 중소기업금융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여 가계부채 부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임
 -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전반 가계금융이 크게 늘어나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

- 2001~2006년 중에는 수도권외의 재산소득 증가세가 동남권을 월등히 상회하였으나 2007~2011년 중에는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임
 - 이에 비해 동남권의 재산소득은 소폭이나마 증가세 시현
- 이는 수도권 가계의 경우 2000년대 전반 부동산 투자붐에 편승하여 금융차입에 의한 주택투자 확대로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지급이자가 수입이자를 상회하기 때문임
 - 수도권외의 순이자·임료소득은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2005년부터 마이너스로 나타남

4 정책적 시사점

(제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한국, 독일, 중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제조업의 투자 및 서비스·건설 등 수요창출 파급효과 등이 재조명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
 - 미국에서는 높은 간접 고용유발효과, 제조업 R&D의 파급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 국내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동남권 및 충청권의 소득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상회함으로써 제조업 기반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기계장비, 자동차 및 조선업의 경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확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적극 지원
 - 이들 산업은 중후장대산업이므로 투자확대를 위해 공장용지를 선제적으로 원활하게 공급
 - 아울러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체육·문화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 다만 기계장비* 및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아 엔화환율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소재, 부품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기술·정보지원 확충
 - 이들 산업은 IT산업에 비해 기술변화가 완만하지만 관련 소재·부품업의 경우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므로 기술발전 등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전파할 수 있는 국제세미나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개최
 - 또는 지역 소재 연구소의 산업기술 트렌드에 대한 연구 확충으로 관련기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 국내 기계산업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은 46.2%(2011년)이며 한일 수출경합도는 0.51(2012년)임
 - **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은 58.0%(2011년)이며 한일 수출경합도는 0.63(2012년)임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소득창출 능력 확대)

- 지역의 소득창출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획기적 발전이 중요
 - 동남권의 소득 증가세가 수도권을 상회한 2007~2011년중 동남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의 신장세가 수도권보다 높거나 격차 축소
 - 서비스업은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도 및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음
- 부산·경남의 경우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종의 창조적인 발전방안 추진
 - 서비스업의 브랜드 가치는 일차적으로 '친절'에 좌우되므로 동남권 공동 친절브랜드 이미지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 2013.8월에 부산관광공사가 실시한 외국인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87.3점인데 비해 쇼핑 만족도는 79.2점에 머물고 있음
 - 숙박업 및 음식업의 경우 청결, 먹거리 안전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운동 전개
 -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 개선, 홍보·안내 관련 사업을 지원
- 특히 부산은 아시아 4위, 세계 17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 관련 산업 파급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마이스(MICE)* 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비즈니스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소비 유도 시스템 구축 필요
 - *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마이스 행사에 참여한 비즈니스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벅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미술관, 영화의 전당 등 영화관련 시설, 주변 쇼핑몰, 요트재개발 지역, 해운대 호텔 등을 연계한 복합지구
 - 부산의 경우 해운대 지역에 호텔이 밀집되어 있고 대규모 국제 행사 시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비즈니스 호텔 확충 필요
 - 현재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관련 업체는 대부분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계절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부산은 1996년부터 매년 가을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킴으로써 문화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음

* 2013. 8월 부산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만족도 조사에서도 외국인 만족도가 87.3점으로 높고 재방문 의향 및 추천 의향도 87점을 넘고 있음

- 부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하절기(8월)에 매일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름 휴가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 런던의 BBC Proms* 와 같이 8월에 4주간 매일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의 문화만족도를 높이고 저명 연주자의 부산 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예술·문화 인지도는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런던의 Royal Albert 홀에서 7월 중순~9월 초순(8주간)에 매일 개최

- 고급문화수요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화 필요

- 제주도를 비롯한 기타 관광지에 비해 부산은 여름 한철 해수욕장 이미지가 강해 여름 기상상태에 따라 관광 수요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부산지역 명품아울렛 오픈과 더불어 호텔 및 테마파크 등의 유치를 통해 계절과 상관없는 관광 수요를 창출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지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자 수 조사에서 제주도의 경우 지난 5년간 25%가 늘었지만 부산은 큰 폭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관광상품 개발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도록 「청년관광기획단」 상설 운영

- 동 기획단은 문화, 경제, 예술, 관광 등을 전공하는 학생 중심으로 구성하고 부산시,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상품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이와 같은 활동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에도 기여

(금융중심지 사업 지속추진)

- 고용 및 소득 창출효과가 높은 금융중심지 사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해운물류, 조선업의 중심지인 동남권의 산업적 특성과 연계되어 설정한 선박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관련 학술회의, 외국 금융기관 유치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영어사용기반 확대 등도 추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 금융기관 직원의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적극 실시
 - 이전직원 자녀에 대한 초·중·고교 선택권 부여, 직원 이주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 * 부산국제금융센터 이전 공공금융기관은 9개이며 금융기관 종사자수는 약 2,780명

(동남권 연계발전 전략 추진)

- 동남권은 산업간 연계성이 높고 국내 제 2위 도시이며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을 중심도시로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동남권은 인구규모도 8백만에 달해 노동력 공급측면에서도 다른 지역경제에 비해 유리함
 -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동남권의 인구는 2001~2006년 중에는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구면에서도 긍정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경제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나가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지역공동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동 위원회에서는 동남권 공동체 또는 도시개발, 산업배치, 교통체계, 정주여건 등에 관한 장기발전 계획을 연구·논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공동으로 추진